

학교법인 창성학원

2025학년도 제10회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2
재적임원	8	2
참석임원	5	0

1. **회의일시:** 2025.11.14.(금) 16:00-17:45

2. **회의장소:** 대덕대학교 정곡관 10층 소회의실 또는 Zoom화상회의 참석

3. **회의 소집 통보일:** 2025.11.06.(목)

4. 임원 출석 현황

□ 참석인원(5명)

- 이사(4명): (직접참석) 김대성, 김태근, 이정민, 임정섭

- 이사(1명): (Zoom화상회의 참석) 김조용

□ 불참 인원(5명)

- 이사(3명): 강경래, 김현리, 성차용

- 감사(2명): 장숙영, 조현준

□ 배 석 자:

- 법인사무국(3명): (간사) 김영훈 총무처장, 윤지연 과장, (서기) 최보경 담당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김조용

5. 회의안건

가. 의결 안건

- 제1호: 대학 적립금 용도(목적) 변경 및 사용 계획 승인(안)
- 제2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제3호: 대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DDU Vision2030) 재수립(안)
- 제4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개정(안)
- 제5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동의(안)
- 제6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재임용 동의(안)
- 제7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안)
- 제8호: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안)
- 제9호: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수익사업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0호: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1호: 중등학교 교원 휴직 동의(안)
- 제12호: 2025학년도 대전중앙중학교회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3호: 2025학년도 대전중앙고등학교회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4호: 김조용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 제15호: 학교법인창성학원 개방이사 추천(안)

나. 기타 협의 및 보고안건

- 제1호: 대학 현안 문제 보고
- 제2호: 이○윤 교사 합격자 취소 보고(안)
- 제3호: 2026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신규교사 채용 협의 승인 취소 보고
- 제4호: 2025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예산전용 보고
- 제5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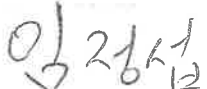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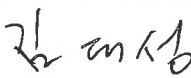

다. 기타 안건

-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 건

6. 회의 내용

가. 성원 보고

2025학년도 제10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7조에 의거 재적 이사 8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간사가 보고하다. 현재 김조용 이사께서 화상회의로 참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다.

이사  이사  이사 

나. 개회 선언

의장(이사장: 임정섭) 2025학년도 제10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제 27조에 의거하여 보고 안건부터 상정하되 보고는 생략하겠다고 하다.

(참석 이사) 동의하다.

다. 의결 안건

(이사 김태근) 제11호, 제12호, 제13호 안건을 먼저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김태근 이사께서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안건을 먼저 상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다. 참석이사에 의견을 묻다.

(이사 김대성)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자고 하다. 순서대로 하되 시급한 안건도 있고, 계속 상정된 안건도 있다고 하다. 모두 필요에 의해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하다. 5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정관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인 3분의 2가 참석하지 않아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다. 또한, 김조용 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학교법인창성학원 개방이사 추천(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안하다. 이사회 구성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일괄 상정은 반대한다고 하다. 그 밖에 추가 의견이 어떤 의미인지 묻다.

(이사 김대성) 정관 개정(안)은 재적이사의 3분의2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안건 논의가 불가능하니 제외하자는 의견이라고 하다. 또한, 이사가 임기가 도래되었으니 이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제14호 및 제15호 안건에 대해서는 제외하자는 의견을 말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다.

(이사 이정민) 순서대로 하자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조용

(이사 김조용) 안전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묻다.

(이사 김태근) 중등학교와 관련된 안전은 의결하는데 특이 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안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안전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은 다른 이사께서 순서대로 하자는 의견이라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다. 추가로 김대성 이사께서 제안한 사항은 우선 각 학교에서 상정한 시급한 안전은 처리하고 이사회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말했다고 하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묻다.

(이사 김태근) 안전 순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수정되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다. 있는 대로, 그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또한 업무방해로 고소되고 있었던 사항을 보면 이사회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다. 또한 계고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지난 회차 이사회 때 김태근 이사께서 중도에 퇴실하여 안전을 처리를 하지 못했고, 당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에게 이사회 참석을 독촉하는 계고를 보내자는 의견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이행한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최근에는 이사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회 개최 일정은 주말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다. 한달 또는 보름에 가까운 시간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였고, 이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다. 참석이사의 의견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대학 적립금 용도(목적) 변경 및 사용계획 승인(안)을 상정하다.

(* 대덕대학교 장화식 부총장과 김호겸 기획처장이 안전설명을 위해 16:11에 배석하다.)

(배석 김호겸 처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김조용

의장(이사장: 임정섭) 용도 변경을 꼭 해야하는 상황인지 묻다.

(이사 김조용) 본인이 보더라도 교직원 보수와 관련된 안전이라 꼭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고 하다.

(이사 김대성) 당초 2025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67억의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안전 처리가 지연되면서 결국 20억만 사용하기로 의결되었고, 나머지 47억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하다. 그 시점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자는 취지로 적립금을 20억만 사용하는 것으로 당시 의결을 했다고 하다. 그 이후에 예산을 운영했던 체계는 RISE사업과 혁신사업으로 약 43억의 외부 자금 유입이 있었고, 이 중 일부는 교비대체 효과가 있었다고 하다. 또한, 한국어교육원에서 발생한 수익등을 포함 약 19억 이라고 하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67억의 적립금 사용을 사용하는 것에서 20억을 인출해서 사용했고, 여기에서 19억을 줄여 28억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다. 28억은 꼭 필요한 경비라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당초 67억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받고자 하였고, 본예산 의결 후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보전해줄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다. 라이즈사업과 혁신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학에서 교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학생의 유입 등을 통해 대학 수입 창출, 교비회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28억 정도의 재원이 특히 인건비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용도 변경 안전이 반드시 의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다. 이사님들에게 의견을 묻다.

(이사 김대성) 동의하다.

(이사 이정민) 동의하다.

(이사 김태근) 반대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처음에 이사회를 할 때와 비교하여 적립금이 얼마 남았는지 묻다. 적립금이 없으면 대학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다. 자구책이 있는지 생각했을 때, 이사장 월급, 총장 월급 이런 것들이 자구책 아닌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조용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장이 무슨 월급을 받았냐고 하다. 이사장 수당이며 이사장 수당이 적립금과 대학의 운영과 무슨 상관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리고 총장의 급여가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총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총장의 급여는 이미 절차를 밟아 책정이 완료된 상태인데 왜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총장의 급여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는지 묻다. 총장은 교원 신분이 아닌지 묻다.

(이사 김대성) 교원 개개인의 급여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제45조의 보수를 보면 된다고 하다. 법을 지키면서 하자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총장으로 선임되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원점으로 돌려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사학진흥재단에서도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다. 그 조사에서도 해당 부분을 다루었다고 하다. 그렇다면 그 처분에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고 하다. 개개인의 급여가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아니라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다.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에 교원의 보수는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것은 보수표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총장의 보수 책정과 관련해서 보수표를 지켰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별도 기준에 따라 총장 보수를 책정했다고 하다.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 구성원의 생계가 달린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대학의 존립에 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다. 대학의 적립금을 얼마나 쓴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태근

것인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적립금은 법인의 적립금이 아니고, 대학의 적립금이라고 하다. 다만, 해당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적립금은 학교가 어렵고 필요할 때 쓰자는 취지로 적립을 해놓은 것이라고 하다. 적립금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묻다. 지금까지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학교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처음에 부임하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적립금을 계속 사용하면 어떡하냐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작년의 노력의 결과가 올해 발생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1학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 수치와 2학기 휴학생의 수치를 작년과 비교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정보공시에서 비교할 수 있다고 하다. 지난 2월 이사회 본예산 이사회 때 이사들께서 20억의 적립금을 일단 처리하고, 향후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주었다고 하다. 첫 번째 안건은 제2호 안건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다. 현재 이부분은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고 하다. 대학 교직원인 약 120명이고, 식솔이 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식솔들은 생활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다. 따라서 재고해줄기를 바란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김태근이사께서 총장 봉급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교원의 보수에 관해서 전체 예산을 이사회에서 정해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다. 총장은 스스로의 월급을 결정하지 못하니 법인에서 결정해주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회에서 교수 개개인의 연봉을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안건은 총장의 보수 때문에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면 향후에 의결을 하겠다는 이사회 내

이사

김대성

이사

김태근

이사

김조용

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최초로 대학에서 요구한 적립금을 모두 승인하지 않고 일부분을 유보하였다가 추경 사유가 발생하면 의결하자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다. 교직원 의 봉급이 부족한데, 현재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직원 보수와 꼭 필요한 경비로 쓰겠다는 것인데 법리적으로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하다. 김태근 이사께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보수를 내보내야 하는 대승적 상황으로 결정해주기를 요청하다.

(이사 김태근) 의결을 요청하다. 반대하다.

(이사 김대성)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큰 문제가 생기게끔 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적립금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에 책정했던 총장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자구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다. 대학에서 무엇을 노력했는지 묻다. 이사장께서는 월급을 받고 있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다. 한달 내내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다. 정확히 알고 말을 바로 해야 한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이사장 수당 수령과 해당 안전인 적립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사장이 출석수당을 받지 않으면 적립금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사장 출석수당은 법인 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대학의 적립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다. 총장의 급여는 총장의 경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다. 총장임용 당시 현재 상임이사는 그 이상으로 급여를 책정하라고도 했다고 하다. 그리고 이사회 참석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답신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강경래, 김현리 이사와 그리고 상임이사으로서 출근하고도 이사회에 불참하는 성차용 이사에게 이사회 참석을 독려하는 계고장을 보낸 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다. 그리고 원인을 다른데 돌리지 말고 안전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하다. 김태근이사께서 반대해서 교직원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영진

(이사 김태근)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면 본인이 이사장을 하겠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본예산 편성 시 67억을 인출할 때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였고 성과를 어떻게 도출할지 질의하였다고 하다. 지금도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다. 교육의 성과는 단박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고재정지원사업과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다. 67억 중에서 19억 정도는 절감을 했고, 따라서 28억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다. 국립대학은 인건비가 보조가 되지만 사립대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다. 500명 이상의 식솔들의 생존권이 김태근 이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다. 정확하게 봐주어야 한다고 하다. 다시 한 번 재고요청을 하다.

(이사 김조용) 본인이 임시 이사를 할 때 재학생 충원율이 지금보다 낮았을 때도 인건비는 해결해주었다고 하다.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전체 추경 예산(안)을 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다. 인건비는 주어야 한다고 하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봉급은 주어야 한다고 하다. 오늘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사가 책임지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학교가 망하면 책임질 것인지 묻다.

(이사 김조용) 가정을 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다. 안전에 대해서 잘 따져보기를 바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처음에 이사로 부임했을 때 적립금이 200억이었는데, 현재는 90억이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 중 어떤 전문대학이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는 대학이 있는지 묻다. 대학 입학 대상 학생수의 총 수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학생 수를 늘려야한다고 하다. 교수를 내보내거나, 학생수를 늘려야된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교수가 퇴직을 하면 충원을 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다. 남아 있는 재학생도 가르쳐야 한다고 하다. 학생을 선발해놓고 가르쳐야 다음에도 또 학생이 오는 것이라고 하다. 생각을 잘 해달라고 하다. 보수도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묻다.

이사

김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김영진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전 이사회에 예산 부족분 발생 시 추경을 해주기로 하고 의결을 했다고 하다. 적립금은 법인의 자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고, 대학에서 적립을 해놓고 위기 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다. 그 이후 사용할 때 마지막에 이사회에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다. 내용이 교직원들 월급인데 기본적인 것도 해주지 않으려는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다.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나, 필수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는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다. 이후에 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상 상해보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재원이 없어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생각해 봐야 하지만, 적립금이 있고 재원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다. 대한민국 전체에 학생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덕대학교만 신입생을 100% 채울 수 있는지 묻다.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현재 외부 자금 규모도 전년 대비 증액되고 있고 또 교직원의 동기부여 및 독려하기 위해서 보수는 주어야 한다고 하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곤란스럽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의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전 이사회에서 대학에 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고, 교직원의 생존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자구책 마련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하다.

(배석 장희식 부총장) 지금 그 자구책을 마련해서 교비를 아끼고 그 이외의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다. 그 결과로써 본예산 67억 요구사항 중 19억을 줄여서 28억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자구노력이 아니었는지 묻다. 사립대학은 김조용이 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입학자원 총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재원을 아끼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보직수당을 줄인 것이 있는지 묻다.

(배석 장희식 부총장) 현재는 없지만 향후에는 고려하겠다고 하다. 대덕대학과 창성학원을 위해서 김태근이사께서 대승적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하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눈에 보인다고 하다. 따라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김조용

(이사 김태근) 운영해나가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하다. 그 전에 자구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을 이사회에서 상의하고 했어야 한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이 안건은 지난 2월에 나왔던 부분이고, 대학의 안전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때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했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앞에 설명을 했을 때 2월에 67억을 요청했으나, 67억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2월에서 4월까지 국가재정지원사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다. 자구책을 통해 19억을 줄여서 28억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다. 그동안 노력한 것은 자구책이 아닌지 묻다.

(이사 김태근)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이것보다 더 큰 자구책이 어디있는지 묻다. 구성원들은 밤을 새면서 보고서를 쓰고 사업을 마무리지어서 내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지 말아야하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다. 적립금을 계속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다. 당초 200억에서 줄어들면 안된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줄지 않으면 좋겠지만 절대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자구책의 방법으로 교직원 봉급을 줄이는 것 만이 자구책이 아니라고 하다. 사실상 대덕대학교는 몇 년 동안 매년 봉급이 감액되었다고 하다. 자구책도 이행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해야지 자구책이 없다면서 28억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자구책이 아니라고 하다. 급여를 9개월 분만 주고, 나머지 기간은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구책이 아니라고 하다. 기본적으로 해줄 것은 이사들이 해주고, 실현가능하고 뚜렷한 목표를 이사들이 논의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자구책이라고 하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자구책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김조용

(이사 김태근) 부탁하고 설득하지 말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봉급 자원(예산)에 대한 추경을 왜 안해주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본인 같으면 그 전에 이야기하고 상의했을 것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지구책을 더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다. 적립금을 쓰지 말고 지구책을 마련하라고 하다. 문제는 이전에 한번도 논의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적립금을 쓰겠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지난 결산 이후에 추경과 관련된 안건이 계속 올라왔었다고 하다.

(* 김태근 이사가 16:58-17:00에 회의장을 잠시 퇴실하다.)

(이사 이정민) 이전부터 노력을 해왔어야 하는데, 적립금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다.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교직원들의 급여를 볼모로 잡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지구책을 말하였는데, 노력한 결과로 28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교직원 급여도 10% 감한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김조용) 지구책의 목표가 얼마지 김태근 이사에 묻다.

(이사 김태근) 29억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29억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묻다.

(이사 김태근)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자고 하다.

(이사 김조용) 전년 대비 인건비를 얼마나 줄여야 지구책으로 생각하는지 묻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조용

(이사 김태근) 답할 이유가 없다고 하다.

(이사 김조용) 아시다시피 중등학교 예산의 추경은 교부가 되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하다. 하지만 대학은 다르다고 하다. 중등학교 예산은 모두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다. 자구책의 목표를 말해 달라고 하다. 9개월치 급여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자는 규모의 자구책을 말하면 그것은 무리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사회 내용 있으면 미리 이사에게 나눠주고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고 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구책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지 묻다.

(이사 김조용) 자구책을 학교에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반영된 결과라고 하다. 본예산에 요청한 67억 중 19억을 줄여서 요청한 상황이고 이것이 자구책이라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숫자가 그것을 증명해준다고 하다. 김태근이사의 판단에 따라서 500명의 식솔이 달려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그런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하겠냐고 묻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다.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이사께서 생각하는 자구책이 무엇인지도 말해달라고 하다. 지금 액면 상으로 나와있는 자구책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더 공부를 해서 오겠다고 하다. 이것이 최대치의 자구책인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김태근 이사께서 말하는 자구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다. 그래야 대학에서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다.

(* 김태근 이사가 17:07-17:14에 회의장을 잠시 퇴실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김태근이사께서 자구책을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 자구책을 제안해달라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28억을 요청하였는데, 조금 더 살펴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사  이사  이사 

챙겨보겠다고 하다. 28억 중 5% 범위 내에서 무슨 수를 써서 절감을 하겠다고 하다. 28억이 아닌 그 중 5% 절감한 금액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다.

(이사 김태근)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하다. 줄 수 있는 정보도 살펴보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니 차후에 논의하자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인건비 지급이 돌아오는 월요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은 교직원들에게 너무 불행한 것이라고 하다. 월급날에 대한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김태근 이사께서 다시 재고해 달라고 하다. 이후에 다음 번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내하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5% 자신이 있는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나 노력해보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5%를 줄여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을 해주기를 요청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직원의 임금과 관련해서 생존권과 관련한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주기를 요청하다.

(이사 김태근) 반대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바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편만한 상황에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부총장의 말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하니, 본인의 의견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만든 것은 이사회에 불찰이었다고 하다.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전혀 치유되지 않고 진행되다 보면 이사회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다. 처음에 이사로 참여했을 때는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하다.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하다. 본인은 11월 17일도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그것은 아니라고 하다. 대학의 입장은 현재 130여개의 전문대학이 모두 녹록치 않다고 하다. 이사께서 근무하실 때의 고등학교의 인원과 현재 인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그 인원의 차이는 대학에 영향을 준다고 하다. 그만큼의 자구노력은 대학에서도 충실하게 해왔다고 하다. 그 노력에는 교직원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고, 그 노동의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장화식

대가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다. 이사께서 대학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얘기했을테니,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서 5%를 절감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다. 이사께서 금액을 얘기해준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가겠다고 하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모든 교직원의 직원들의 월급이 못나가게 되는 것이 본인 때문인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매달리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 김대성) 28억의 5%면 얼마지 묻다. 예를 든다면 보직수당을 아예 없애면 산술적으로 그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다. 요소별로 찾아보겠다고 하다. 선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재고를 해달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생각할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다. 자구책이 나오고 공부를 한 후에 말을 하겠다고 하다. 작년과의 비교를 통해 말하겠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2월 본예산 편성할 때 김태근 이사도 계셨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본인은 당초 적립금 20억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다. 그 뒤로 모두 해결을 하는줄 알았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당초 본예산 편성 시 20억 적립금 인출은 승인하되, 향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추가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본예산 안전이 의결되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 당시 이사회에서 추경에 해주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이사도 있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본인은 향후 일정이 있어 6시까지만 참여가능하다고 말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2호 안전도 상정하여 우선 설명을 듣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2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은용

정하다.

(이사 김태근) 제1호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안전이라면 설명의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배석 김호겸 처장)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안전과 맞물려 있는 안전이라고 하다. 제1호 안전과 제2호 안전을 모두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상정된 예산 대비 5%를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 결을 해 줄 것을 제안하다.

(이사 김태근)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심의의결 사항은 아니고 자문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자문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자문을 받고 진행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자문에 하자가 있다고 하다. 대학평의원회 의장 해촉과 관련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의원이 해촉된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 김태근)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인지 의장과 관련된 내용인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팔호치고 의장이라고 왔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 안전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새로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다.

이사

임정섭

이사

김태근

이사

장화식

(이사 김태근) 새로 선출한 의장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다. 의장을 해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그 당시 평의회 의장이었던 교수가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본인이 안건을 선정하고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이사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묻다. 안건을 올렸는데, 마음대로 안건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이사장인데 평의회 의장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총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다. 이사회의 권한과 평의회의 권한은 다르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이사회의 권한과 대학평의회의는 다른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교육부의 조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볼 수 있는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대학평의회 의원 해촉 때문에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학 평의회 의장 한 사람의 문제와 약 500명의 식솔이 달려 있는 문제는 등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지 묻다.

(이사 김태근) 그렇다면 직원 채용 공고가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구책이라고 보는지 묻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다. 결원발생으로 인한 채용공고이나,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직원들은 결원이 있는 부분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다.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다 채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다. 직원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돈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된다고 하다.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김대성) 대학의 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하다. 이것은 법인의 적립금이 아니라고 하다. 대학이 필요해서 적립한 재원에 대해서 그런 논조로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김태근 이사께서 제1호 안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더 공부해야 하고, 제2호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 상정 과정 중 해당 안전이 대학평의회 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회 의장과 관련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하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하다. 그렇다면 제1호, 제2호 안전을 의결을 해주지 않을 분위기 인 것 같다고 하다.

(이사 김태근) 본인은 부결이라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면 제1호 안전과 제2호 안전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대학의 현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타협의 및 보고안전 제1호 안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다.

(배석 장화식 부총장) 지금 당장 17일에 임금이 나가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된다고 하다. (* 김태근 이사가 17:45에 퇴실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다.

라. 기타안전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본인을 포함하여 간서명은 김대성, 김조용 이사가 진행하자고 제안하다.

(참 석 이 사) 동의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끝으로 오늘 다루고자하는 1호, 2호 안전은 17일 월급날까지 의결되어야 될 긴급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안전으로 17일 오전에 긴급이사회 개최가 필요함을 말하다.

(참 석 이 사) 동의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이 오늘의 이사회 마무리 발언에 이어 폐회선언이 있음. (*2025.11.14.(금) 17:45)

이사 임정섭 이사 김대성 이사 김조용

2025.11.14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 사장

임 정 섭

(서명)
임정섭 12

이 사

강 경 래

(서명)

이 사

김 대 성

(서명)
김대성

이 사

김 조 용

(서명)
김조용

이 사

김 태 근

(서명)
김태근

이 사

김 현 리

(서명)

이 사

이 정 민

(서명)
이정민

이 사

성 차 용

(서명)